

경제파탄으로 최악의 불황 맞이한 아르헨티나 출판계

도서매출 반으로 격감하고 도서 수입 통로 막혀

정 창 | 번역가

스페인에서 라틴아메리카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는 암담한 현실에 놓여 있는 아르헨티나 경제와 그 여파에 따른 출판계의 우울한 소식을 접하게 된다. 오늘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코리엔테스 거리에 위치한 서점들은 24시간 문을 열고 있다. 그러나 독자들의 발길은 뜸하다. 아니 아무것도 사지 않는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이런 살풍경은 《라 반과르디아》지가 지적하듯 지난해 출판계의 도서 매출이 전년에 비해 50%나 60% 정도 격감하고, 그 동안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서점 250여개가 문을 닫았거나 닫고 있다는 통계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4년째 계속된 경기 침체와 그사이 40% 평가 절하된 화폐가치에서 예견됐듯, 아르헨티나 경제 파탄의 여파는 문화산업 전반의 불황에 그치지 않고 자국 경제의 회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태까지 이르렀다.

거둬진 인플레이션으로 수입도서 가격 급상승해

과거 60년대에 스페인어권 출판시장을 장악했던 아르헨티나가 그 주도권을 스페인에 넘긴 것은 이제 까마득한 옛일이다. 그들의 서점에 진열된 책 가운데 절반 이상은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처럼 스페인에서 수입된 것이다. 하지만 자국 독자들이 수입 도서를 구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둬진 인플레이션으로 그 가격이 솜사탕처럼 불어났으니 말이다. 아울러 지난해 도서 시장에서 판매된 7천3백만권의 도서 가운데 90%는 하드커버가 아닌 지질이 거

친 종이책이었다. 유행이 아니라 도서 원가를 낮추려는 출판사들의 고육책에 따른 결과다.

아르헨티나 출판계는 올해 3월 1일까지 도서가격에 변동이 없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문화와 교육 산업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작가·삽화가·제본가·제지업자·인쇄업자·서적상 등이 나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독서시장 활성화라는 취지는 자국민들의 호구지책조차 마땅찮은 판국이라 공허한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다양한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도 수입 서적을 취급하는 출판사와 서점들의 현실은 절박하다. 세관에는 무수한 스페인 수입 도서들이 쌓여 있지만 어느 출판사도 통관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은행 구좌가 막힌 상태에서 통관세로 뺏뺏한 지폐, 즉 현금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이러니컬한 현상도 없지 않다. <아르헨티나 서적 회의소 (Cara Argentina del Libro)>에는 1669개의 출판사(참고로 2000년에 약 1만4천 종의 도서가 ISBN을 부여받았다)가 등록돼 있는데, 이들은 폐소의 평가절하가 자국의 출판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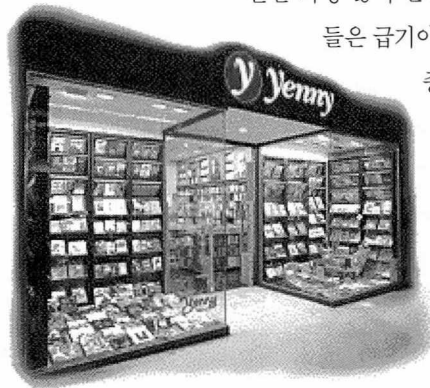
다. 그러나 이런 전망은 단지 희망 사항일 뿐이다. 외국으로 외화를 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저작권료 지불은 고사하고 어떤 계약도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982종의 영어, 155종의 프랑스어, 144종의 이탈리아어 출판물이 번역 출간된 아르헨티나에서 외화 송금 중단이라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외국 서적 번역이나 출간은 당분간 요원한 일이 되고 만 것이다.

스페인의 아르헨티나 도서 수출 중단돼

한편, 아르헨티나의 경제 혼란으로 상대적 손실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는 스페인이다. 그

들은 급기야 대 아르헨티나 도서 수출

중지라는 잠정적 조치를 내렸다. 통합 유럽의 새로운 화폐 5천5백만 유로에 상당하는 도서를 해외에 수출(2000년 출판조합연맹 통계. 이 가운데 대 아르헨티나 수출 비율은 10.4%를 차지한다)하는 스페인의 입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250여개의 서점들이 문을 닫았다. 사진은 아르헨티나에 22개의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예니(yenny)'의 한 서점 전경.

장에선 당연한 움직임인 셈이다. 예를 들어 이번 사태를 '최악의 위기'로 비유한 랜덤 하우스 몬다도리 그룹이나 플라네타 그룹은 관세 정책의 변화에 따라 팔 수 없는 가격으로 치솟은 책값과 그로 인해 판매액 감소가 80%까지 곤두박질치자 현지 지사의 구조 조정이나 현지 도서 생산 등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데 골몰하고 있다.

“새들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물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책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다.” 4월에 개최될 ‘부에노스아이레스 세계 도서전’(4월28일~5월6일)의 제언인 이 문장은 20세기 산문 문학의 패러다임을 이끈 보르헤스의 말이다. 지금 아르헨티나는 마치 전통처럼 되풀이되는 경제 파탄에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다. 그들이 모색하고 있는 위기 탈출의 해답은 정작 그들이 만들어낸 책 속에 있지 않을까. ■